

일 주 문

도문 스님 <금강경> 범회 봉행
장수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은 12월 8일 연천 원심원사(주지 세민)에서 <금강경> 상세해설 설법을 했다. (031)834-8467

백담사, 청소년 템플스테이 개최
백담사 주지 삼조 스님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단기(1개월·4박 5일) 템플스테이를 2012년 1월부터 진행한다. (033)462-5565

일산노인복지관, 어르신 작품 발표회 개최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능인 스님은 12월 27~30일 어르신들의 재능을 볼 수 있는 작품 발표회를 개최한다. (031) 919-8677

서울노인복지센터, 취업특강 진행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정원 스님은 12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영장에서 55세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취업특강을 열었다. (02)6911-9555

영동종합복지관, 모금행사 진행
영동종합사회복지관장 수안 스님은 12월 5~17일 의왕·과천 불게이트에서 소외이웃을 위한 모금행사를 진행했다. (031)201-8307

화남출판사 '가위주먹' 출간
화남출판사 방남수 대표는 최근 구광렬 작가의 1967년 발생한 북측 도발과 남북 응징정보 작전을 소재로 한 실화소설 '가위주먹'을 펴냈다. (02)3142-4787

정상영 KCC 명예회장, 자랑스러운 동국인 대상 수상

KCC 정상영 명예회장(법학과 57학번)이 자랑스러운 동국인 대상을 수상했다.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이연택)는 12월 14일 그랜드 엠베서더 호텔에서 '동국인의 밤' 행사에서 KCC 정상영 명예회장에게 '자랑스러운 동국인 대상'을 수여했다.
또, 행사에서는 연기자 고희정(연극영화학과 90학번) 씨에게는 '제1회 동국을 빛낸 연예인상'이 수여됐다.

대한불교조동종 정기총회
대한불교조동종은 불기 2555년 후반기 정기총회를 12월 13일 종정 스님 주석사찰인 양주 보리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연례적으로 추진해온 사업과 추진 가능한 신규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공석이었던 포교원장에는 해권 스님, 부원장에는 법화 스님, 중회부의장에 해광 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경상남부지사장 형운 스님

이번에는 청와대서 'Talk' (토크)

직원대상 비공개 특강
시비 가리는 것 중요치 않아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자
22일 화쟁리더스포럼서 강연



스님은 또 "젊은이들이 너무 안전한 것만 찾어서는 안 된다. 현재만 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해

법륜 스님이 청와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송년 특강에서 공직자들의 참된 자세에 대해 강조했다.
스님은 12월 14일 청와대를 방문해 비공개 강연에 가졌다. 언론의 취재요구에 청와대 측은 스님의 요청으로 공개를 제한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등 언론사에 따르면 이날 스님은 "요즘 젊은이들은 과거보다 부유해졌음에도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비현실을 가능성으로 바꾼 50~60년대에는 희망이 있었다"며 꿈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나 가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 작은 실패는 큰 실패를 막아준다"고 말했다.
법륜 스님은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스님은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집행을 하면서 옳고 그름만 따지는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15일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 창립15주년 기념강사와 후원의 밤을 열고 "대북 지원은 정치적·종교적 이념을 떠나 인간의 상식선에서 바라볼 일"이라며 "우리가 북한동포들의 유일한 희망의 등불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후원과 활동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륜 스님은 22일 오후 7시 한 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화쟁리더스포럼 송년포럼에서 '화쟁사상과 불자들의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특강한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영적자원 확대가 사회복지 키운다

'사회복지실천과 영적자원' 펴낸 권경임 회장

"사회복지는 주로 물질적 자원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가 전개돼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1세기는 글로벌 영성의 시대입니다. 때문에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영성과 영적자원의 개발과 적용이 연구과제가 되리라 전망합니다."
불교사회복지전문가인 권경임 종교사회복지포럼 회장은 최근 도승자 교수(중원대 사회복지학), 유장준 교수(한동대 사회복지학)와 공동집필한 <사회복지실천과 영적자원>(신정 권)에서 영성과 영적자원을 개발해 사회복지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사회복지 역사가 종교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그러나 종교 사회복지 는 아직 그 위상과 정체성이 정립돼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이를 위해 영성적 관점의 연구가 필요함을 주목하고 종교사회복지포럼을 단체활동보다 연구의 기능에 강화하는 연구소로 키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종교 및 일반 사회복지

가 인간과 사회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영성과 영적자원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연구에 포커스를 두고 연구와 실천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권경임 회장은 "영성은 종교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도 되지만 종교는 영성을 빼고는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펴낸 <사회복지실천과 영적자원>에서는 종교계 사회복지의 영성과 영적자원을 고찰하고 나아가 일반 사회복지 실천 분야에서의 통합적 영적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영성과 영적자원이 사회복지 실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책은 6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권경임 회장은 >제1장 종교 사회복지와 영적자원과 >제2장 불교 사회복지의 영성과 영적자원을, 유장준 교수는 >제3장 기독교적 관점의 인간본질과 영성적 사회복지와 >제4장 기독교 사회복지의 영성적 체계를, 도승자 교수가 >제5장 글로벌 복지사회를 위한 통합적 영적리더십과 >제6장 신앙기반 지역



사회 기관들의 글로벌 사회 자본을 집필했다.
권경임 회장은 가톨릭대에서 사회사업학을 전공했고 동국대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서울시립노인요양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국제사회복지학회 감사와 한국글로벌청년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현대불교사회복지론> <시민사회와 종교사회복지> <영성사회복지와 청소년개발> 등이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강남 4구 포교 구심점 마련돼

조계종 강남지역 사암연합회 창립...35사찰 하나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구의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 하고 불교 발전과 포교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강남지역 사암연합회'(이하 강남지역 사암연합회) 창립총회가 12월 16일 구룡사에서 개최된다.
강남지역 사암연합회는 강남 4구의 조계종 사찰 35곳으로 구성됐다. 연합회는 6월 중순 준비모임을 결성하고 7월부턴 강남 4구 대표사찰 주지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구성됐다.
강남지역 사암연합회는 금강선원회주 혜거 스님이 고문을, 구룡사 회

주 정우 스님이 회장을 맡았다. 불광 사 회주 지홍 스님(송파구),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강남구), 대성사 주지 법안 스님(서초구), 동명불원 주지 덕천 스님(강동구), 법륜사 주지 지유 스님(비구니)이 공동부회장을 각각 맡아 출범했다.
'강남지역 사암연합회'는 2012년 주요사업으로 법회 및 문화행사의 공동개최를 통한 상호 교류, 지역단위 불교 발전을 위한 진취적 비전 제시, 지역 포교와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 등을 선정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조계종 강남지역 사암연합회가 창립돼 강남4구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대전사, 종립학교 발전 기금 쾌척

조계종 제10교구 은혜사(주지 돈관) 말사인 주왕산 대전사(재산관리인 정덕)가 종립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을 전달했다.
대전사 재산관리인 정덕 스님은 영천 선화여고 장학금 1억원과 동국학원 후원금 4000만 원을 12월 15일 은혜사 도선당에서 학교 측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은혜사 주지 돈관 스님과 동국학원 장학회 후원회장 돈명 스

님, 이대웅 교장을 비롯한 선화여고 교직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은혜사는 지난해 9월 학교법인 동국학원을 설립한 뒤 영천 선화여고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대전사는 지난달에도 청송군에 운영발전기금 5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제10교구 직영사찰로 전환된 뒤 수익금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 지사장

선재동자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승)이 저소득 청소년 지원을 위한 '선재의 선물' 캠페인 포장식을 12월 15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진행했다.
선재의 선물은 겨울철을 맞아 마련된 모자와 장갑을 비롯해 다이어리, 카드, 영양제, 책 등으로 구성됐다. 카드에는 배우 전해민씨와 동국대생들의 희망 메시지가 담겨 있다.
선재의 선물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아름다운동행이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매년 2000~2500여 청소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선재의 선물은 후원자들이 직접 선물을 준비하거나, 후원금을 입금하면 동행이 선물을 마련한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혜일 스님은 "올 겨울은 유난히 춥다고 한다. 청소년들이 선재의 선물을 받고 몸도 마음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장식에는 조계종 중무생각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아름다운동행이

사단법인 한국미륵불교 종단 등록자(사찰)중 제4차 제적자 공고

- 아래 사찰 및 승니, 포교사는 당 종단 정관 제6조 및 제8조 종헌, 제18조에 의거 이사회 결의로 제적 공고 함.
■제적일자 : 2011년 12월 31일
■제적된 자(사찰)는 본 종단 소속 명의로 일체업무 금지, 사찰등록증, 승려증, 포교사증 효력상실.
■사단법인 한국미륵불교 소속 사찰로 사업자등록(세무서)을 즉각 취소 및 년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금지.

Table with 14 columns: 성명, 불명, 사찰명, 등록번호, 소재지, 성명, 불명, 사찰명, 등록번호, 소재지, 성명, 불명, 사찰명, 등록번호, 소재지. Lists various Buddhist temples and their registration details.

이상 40명 제적함.
불기 2555(2011)년 12월 31일
사단법인 한국미륵불교 이사회
이사장 신용태(법련), 총무원장 강경우(송봉)